

# '80년' 진실 밝힐 비망록 존재 가능성 높다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가 23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최규하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규하 전 대통령 조문 줄이어

### 손학규·이회창씨 등 정·관계 인사 빈소 찾아 애도 전두환 전 대통령 "섬세한 성격...모두 기록했을 것"

전두환 전 대통령은 23일 "최규하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일 등) 굉장히 섬세하고 공부하게 모두 기록했을 것"이라며 "비망록 형식이든 회고록 형식이든 발표가 되면 여러분이 궁금하게 여기는 점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된 최 전 대통령의 빈소를 측근 인사 20여명과 함께 찾은 자리에서 최 전 대통령의 하야 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최 전 대통령은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내가 보고하고 지침 받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고 공부하게 모두 기록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께 보고할 때는 담당 비서관이 합석하는데 합수본부장이 보고할 때 대통령이 원하면 비서관이 배석했고 원하지 않으면 배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격정스럽다"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고인의 외교 역량을 참조해 정부와 국민이 지혜를 짜내면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전 대통령의 빈소에는 정·관계 인사와 지인들의 조문행렬이 이틀째 이어졌다. 이용훈 대법원장,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김성호 법무부 장관, 이치범 환경부 장관, 이종석 통일부장관, 김명근 문화부장관이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날 오전 11시46분께 빈소를 찾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나라의 큰 어른이 돌아가신 점에 대해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며 "최 전 대통령께서 못 다하신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셨다"고 말했다.

또 전제희 한나라당 의원, 박관용·이

만섭 전 국회의장과 정원식 전 국무총리,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도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한편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26일 치르며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 안장하는 내용의 '최규하 전 대통령 국민장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장례일인 26일 경북 공평 들 앞에서 영결식이 엄수되며, 이날 하루 전국 관공서는 조기를 게양한다. 장례비용은 예비비로 집행되며 4억~5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장의위원장은 한 총리가 맡고, 3부 요인과 각 정당대표, 친지와 그 외 저명인사들이 고문직을 각각 맡게 되며 부위원장단은 여야 국회의장과 선인 대법관, 3명의 부총리, 감사원장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최 전 대통령과 2004년 7월 최 전 대통령과 같은 88세(미수)의 나이로 별세한 최 전 대통령의 부인 고 홍기여사의 유해를 합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현재 원주 선산에 있는 홍 여사의 유해는 25일께 서울대 병원으로 운구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현장과 시각

### 위기의 전남쌀 살리려면



송기동

사회2부 차장

최근 농림부와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된 올해 '브랜드 쌀 품평회'에서 전남 옥천농협의 '한눈에 반한 쌀'이 최우수 브랜드로 선정되고 양건이 탐관 쌀(나주), 드림샘미(나주), 사계절이사는 집(영광), 프리미엄호평(강진) 등이 우수 브랜드로 뽑히는 화려한 성과를 거뒀다.

전국 우수 브랜드 쌀 12개중에서 무려 5개를 전남 쌀이 차지한 것은 대단한 경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외견상 이같은 눈부신 성적에도 불구하고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남쌀 판매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무엇보다 브랜드 남입이 심각한 수준이다. 전남에서 생산되는 쌀 브랜드 종류만 338개에 이른다. 당연히 소비자들의 선택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338개 브랜드 가운데 농산물 품질인증제도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것은 24개에 불과해 전국 평균 1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상표 및 의장등록을 한 브랜드 역시 전체 22%인 73개로 전국 평균 34%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해 3월 농촌진흥청이 102개 브랜드 쌀 혼입률(다른 품종이 섞인 정도)을 조사한 결과 전남 쌀은 평균(31%)보다 높은 50.2%로 나타났다.

일부 중국산 수입쌀의 국산 둔갑도 '친환경'을 내세워 입지를 다지고 있는 전남쌀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적발된 이런 사례는 전국 22건, 전남 3건에 달한다. 심지어 전남 2개 지역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는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7대 3 비율로 섞은 뒤 전남 브랜드 쌀로 유통시키다 적발되기도 했다.

중국산 수입쌀은 대부분 동북 3성에서 재배된 길이가 짧고 둥근 단립종(자포니카) 계열 쌀이어서 국내산과 똑같이 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다. 당연히 단속이 쉽지 않아 실제 유통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장을 적발한 뒤 중국산 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는 'DNA 분석'을 거친 후야야 중국산 혼합 여부를 판별할 수 있어 10일 정도가 소요된다.

전남쌀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품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관리와 함께 쌀 브랜드를 통·폐합, 대표 브랜드 육성이 시급하다.

수입쌀의 국산 둔갑 등 부정 유통행위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투명한 유통구조 확보, 처벌 강화 등 전남도와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중국산 쌀 부정유통을 막는 것만이 전남 쌀의 살 길이다.

/song@kwangju.co.kr

## 역사의 아이러니...

### 최규하 전 대통령 10·26 '그날'에 영면

고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례는 오는 26일 열리게 된다.

자신을 격랑의 소용돌이로 몰고갔던 '10.26 사태'가 있는지 꼭 27년이 지난 '그날', 영육과 질곡의 삶을 뒤로한 채 이승과 하직을 고하게 된 셈이다.

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하의 총탄에 맞아 갑작스레 서거한 '10.26 사태'는 의무부 장관을 거쳐 4년간 국무총리직을 수행하는 등 공직생활에서 승승장구하던 최 전 대통령을 혼돈의 회오리 속으로 내모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최 전 대통령은 박 대통령 밑에서 외무장관과 국무총리를 각각 4년씩 지냈다. 최 전 대통령도 후일 지인들에게 "나는 박정희 사람"이라고 솔직함을 정도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의가 남달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 전 대통령의 한 지인은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최 전 대통령의 장례일이 10월 26일인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삼 최 전 대통령은 겸손하고 청렴한 생활이 알려지면서 귀감이 되고 있다. 최 전 대통령은 40년간 서울 서교동의 2층 짜리 조그마한 단독주택에서 별다른 수리도 하지 않은 채 살았다.

서교동 자택은 지난 2004년까지 연탄보일러를 썼는데 그것도 오래돼서 바꾼 게 아니라 연탄을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대통령이 이처럼 연탄보일러를 고집했던 것은 국무총리 시절이었던 1978년 1월 장성탄광 막장에서 고생하는 광부들을 보고 "끝까지 연탄을 써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홍순 비서실장은 "최 전 대통령은 구두도 옛날 것, 늘 같은 것을 신었다"며 "생활 전반적으로 절약하는 습관이 생이 났"이라고 회고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국감 2題 / 수도권 기업, 광주·전남 지역 외면 고속도 기능 상실 불구 통행료 다반야

#### 종업원 50명 이상 기업 이전 각각 2곳 불과

수도권 기업들이 광주·전남지역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무소속 권선택(대진 중구) 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광주와 전남지역으로 이전한 종업원 50명 이상 기업은 각각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을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 6월말 현재 광주로 이전한 종업원 50명 이상의 수도권 기업은 2곳에 불과했고 전남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강원으로는 63개의 수도권 기업이 이전했고 전북 38개, 충남 27개, 충북 6개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은 강원도는 수도권에 가까워 물류 비용이 적게 드는 데다 전북과 충남, 충북 등은 행정복합도시와의 접근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상습정체·교통외해 55개 구간 3천여억원 거뒀

고속도로의 9% 가량이 상습정체 구간으로 유료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이들 구간에서 징수한 통행료는 무려 3천여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도로공사가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통행속도 등 서비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국 고속도로 325개 구간 2천804.3km 가운데 9%에 해당하는 55개 구간 251.8km가 E, F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등급(43개 구간, 194.7km)은 차선을 바꾸지 못할 정도로 혼잡스러운 도로 상태를, F등급(12개 구간, 57.1km)은 교통 수요가 교통 용량을 넘어서 차량흐름이 무너진 '교통외해'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들 구간은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지만 도로공사가 작년 이 구간에서 받은 통행료는 3천182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좋은 사람, 좋은 만남 - 상주는 사랑과 삶의 희망, 기쁨이 두배가 됩니다. (주) 황주시장(주) 박은 드림

중국/일본	통영이	미주/대양주/유럽
<p>1. 300,000 + ...</p> <p>2. 399,000 + ...</p> <p>3. 449,000 + ...</p> <p>4. 449,000 + ...</p> <p>5. 599,000 + ...</p> <p>6. 699,000 + ...</p> <p>7. 449,000 + ...</p> <p>8. 449,000 + ...</p> <p>9. 799,000 + ...</p> <p>10. 599,000 + ...</p> <p>11. 499,000 + ...</p> <p>12. 549,000 + ...</p>	<p>1. 599,000 + ...</p> <p>2. 549,000 + ...</p> <p>3. 549,000 + ...</p> <p>4. 629,000 + ...</p> <p>5. 499,000 + ...</p> <p>6. 649,000 + ...</p> <p>7. 649,000 + ...</p> <p>8. 499,000 + ...</p> <p>9. 1,399,000 + ...</p> <p>10. 1,299,000 + ...</p> <p>11. 1,299,000 + ...</p>	<p>1. 1,900,000 + ...</p> <p>2. 1,190,000 + ...</p> <p>3. 5,180,000 + ...</p> <p>4. 1,490,000 + ...</p> <p>5. 1,490,000 + ...</p> <p>6. 1,490,000 + ...</p> <p>7. 1,990,000 + ...</p> <p>8. 1,490,000 + ...</p> <p>9. 1,990,000 + ...</p> <p>10. 1,390,000 + ...</p> <p>11. 3,290,000 + ...</p> <p>12. 2,390,000 + ...</p>

왜? 황주인여행을 다시 찾을까요?

1. 2000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27주년 기념 행사

2. 2000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27주년 기념 행사

3. 2000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27주년 기념 행사

4. 2000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27주년 기념 행사

5. 2000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27주년 기념 행사

6. 2000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27주년 기념 행사

7. 2000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27주년 기념 행사

8. 2000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27주년 기념 행사

9. 2000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27주년 기념 행사

10. 2000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27주년 기념 행사

11. 2000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27주년 기념 행사

12. 2000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27주년 기념 행사